

연예뉴스 스테이션

송해 헌정공연, 진통 끝에 22일 예정대로 개최



원로 코미디언 송해(88·사진)를 위한 헌정공연이 진통 끝에 22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송해는 11월에 개최하려던 공연 관련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해 그 배경에 의구심을 낳았다. 이와 관련해 송해 측 관계자는 “제작사 두 곳에서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문제가 촉발돼 기자회견을 취소했다”며 “제작사의 무책임한 행동과 별도로 공연 출연진을 조율해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90수 송해 헌정공연’은 송해를 비롯해 가수 인순이와 후배 코미디언 등이 참여한 가운데 22일 오후 6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된다. 3500석 규모의 이 공연은 송해가 대한노인회 회원 등을 초대해 무료로 열린다.

김준수 ‘육룡이 나르샤’ 삽입곡 ‘너라는…’ 공개



가수 김준수(사진)가 SBS 월화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의 삽입곡 ‘너라는 시간이 흐른다’를 11일 온라인 음원사이트에 공개했다.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이먼트는 “발라드 OST에서 인정받은 김준수는 발표하는 노래마다 해당 드라마에 버금가는 사랑을 얻었다”며 “‘너라는 시간이 흐른다’ 역시 김준수의 개성을 담은 명품 발라드라는 평가가 많다”고 밝혔다. 김준수의 노래는 드라마에서 주인공 유아인과 신세경 등의 멜로 감정을 대변한다.

문정희, 장애인 법률 안내 동영상 목소리 기부



배우 문정희(사진)가 장애인 돕기 목소리 재능기부에 나섰다. 문정희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제작된 안내 동영상 내레이션에 맡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달장애인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제작한 영상으로, 21일 법률 시행에 맞춰 관련 기관과 단체 1000여곳에 전달된다. 10일 녹음을 마친 문정희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에 기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었다”고 밝혔다.

미국 이주 한대수, 내달 25일 국내 마지막 공연



히피 문화의 선구자로 통하는 음악가 한대수(67·사진)가 한국에서 마지막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봄 미국 뉴욕으로 이주하는 그는 12월25일 오후 5시30분 경복 경주시 한국 대중음악박물관 카페 랩소디 인블루에서 ‘인 더 하트 오브 신라 다이내스티’란 제목의 공연을 연다. 한대수는 초등학교 2학년인 딸의 교육 문제 등으로 미국 이주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형주, 로마시립예술대 성악과 명예교수 임용



팜페라 테너 임형주(사진)가 한국인 최초로 이탈리아 로마시립예술대학 성악과 명예교수에 임용됐다. 소속사 유니버설뮤직은 11일 “자존심 강한 로마의 명문 예술교육기관에서 팜페라 가수인 임형주를 임용한 데는 지금까지 쌓아온 화려한 음악 경력이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임형주는 로마시립예술대 성악과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앞으로 이 대학 국제 음악학부에서 음악 연구 활동은 물론 팜페라 관련 특강을 진행한다.

책 랭킹

순위	제목	작가
1	미움받을 용기	기시미 이치로
2	라면을 끓이며	김훈
3	언제 들어도 좋은 말	이석원
4	마션	앤디 위어
5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채사장
6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사이토 다카시
7	원피스, 79	오다 에이치로
8	오베라는 남자	프레드릭 베크만
9	내가 혼자 여행하는 이유	카트린 지타
10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똥똥하지만 당당한 역”

“시청률 연연치 않는다”

- 신민아

- 소지섭

드라마 ‘오 마이 비너스’ 제작발표회

신민아 “동네 아는 언니 같은 캐릭터 끌려”
소지섭 “요즘 친구들 ‘주군의 태양’ 만 알아”

완벽한 얼굴과 몸매, 그리고 연기까지 인정받은 두 스타가 인방극장을 찾는다.

소지섭과 신민아가 16일 첫 방송하는 KBS 2TV 월화드라마 ‘오 마이 비너스’를 통해 각각 ‘주군의 태양’ 이후 2년, ‘아랑 사또전’ 이후 3년 만에 시청자를 만난다. 두 사람 모두 짧지 않은 공백기를 보냈고, 과거 의류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한 이후 드라마에서는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게 돼 캐스팅 소식이 알려지고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다.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의 만남은 누구나 기대하는 조합이기도 하다.

신민아는 11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오 마이 비너스’ 제작발표회에서 “예전부터 ‘소지섭과 함께 작품 한 번 해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저도 이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하게 돼 신나게 촬영하고 있다”면서 “전형적인 멜로의 느낌보다는 스킨십의 도발적이고 섹시한 로맨스가 있지 않을까”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오 마이 비너스’는 일에 치여 외모를 잃은 변호사(신민아)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헬스트레이너(소지섭)를 만나 다이어트에 도전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드라마다. 그렇지만 결코 외모가 전부가 아닌 메시지를 담지는 않는다.

신민아는 극중 똥똥한 캐릭터가 살을 빼가는 과정이 단순히 미모를 찾는 것이 아닌 자아를 더욱 당당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데 크게 공감해 출연을 결정했다. 그는

“똥똥하지만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말하는 캐릭터다. 자신의 생각을 확실하게 전한다”며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렇지 못해 연기로 표현하는 데 고민이 많았다.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자신에게 없는 부분이지만 캐릭터를 통해 극복해가겠다는 말이다.

똥똥하게 분장하는 것도 “육체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이전 작품에서 맡았던 귀신이나 구미호 등이 아닌 “동네에서 만날 수 있는”, ‘아는 언니’ 같은 현실적인 캐릭터라는 점에 끌렸다.

소지섭은 “드라마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영화와 달리 시청자가 제한적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보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드라마가 행복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출연을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시청률, 그런 것들이 중요하냐. 이렇게 연기 활동을 하니 수치가 연연하지 않게 되더라.”

사실 지금의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의 시청자에게는 2004년 KBS 2TV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소지섭이 남긴 이미지가 강렬하다. 소지섭은 그러나 2013년 SBS ‘주군의 태양’을 시작으로 한층 여유롭게 짐을 털어내는 분위기를 풍겼다. 그 역시 “요즘 친구들은 ‘미안하다, 사랑한다’를 모르고 대신 ‘주군의 태양’만 알더라”며 웃었다. 이어 “제가 행복한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하면 그대로 시청자에게 전달이 되더라. 어느 순간 그렇게 된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소지섭과 신민아 모두 이번 작품이 거울 성적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이 시청자에게 온전히 전해지기를 더욱 기대하는 듯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풍만한 몸매의 변호사와 유명한 헬스트레이너의 사랑이야기. 신민아(사진 왼쪽)와 소지섭이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KBS 2TV ‘오 마이 비너스’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손을 흔들고 있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이문세 ‘소녀’의 이름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 돕기 성탄카드 기획
평화콘서트 인연…수익금 1억원 눈앞

가수 이문세가 자신의 히트곡 ‘소녀’로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문세는 ‘소녀’를 부르며 떠오른,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돕기 위한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 판매 보름 만에 1억원에 가까운 매출액을 기록했다. 또 노래 ‘소녀’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테마곡으로 선정돼 방영 내내 시청자의 감성을 자극할 전망이다.

이문세는 8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경기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2015 DMZ 평화콘서트’에 출연했다. 당시 ‘소녀’를 부르기에 앞서 “그동안 수백번 ‘소녀’를 불렀지만, 오늘은 특별하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해 부르겠다”고 말해 관객에게 뭉클함을 안겨줬다. 무대가 끝난 후 이문세는 노래에 그치지 않고 실천에 옮기기 위해 크리스마스 카드를 생각해냈다. 그는 유명 삽화가와 캘리그라퍼들에게 수익금 전액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삶터 ‘나눔의 집’에 전달돼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에 쓰인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뒤이어 이



특별한 크리스마스 카드다. 가수 이문세(왼쪽에서 세 번째)가 이우기 작가 등 유명 삽화가와 함께 손잡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돕기 위해 나섰다. 사진제공 | 이우기 작가

들의 재능기부로 카드가 탄생했다. 이문세 측은 “10월 말부터 판매를 시작해,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았지만 머지않아 1억 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의미 있는 것은 일본에서도 온라인 구매가 이뤄지

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의미가 담겨진 ‘소녀’는 연말까지 인방극장에서 울려 퍼질 예정이다. tvN 금토드라마 ‘응답하라 1998’ 시리즈의 주제작으로 선정돼 드라마 방영 내내 삽입될 예정이다. 이미 2회 마지막 장면에 등장했다. 또 ‘응답하라 1998’에서는 이문세가 진행하던 유명 라디오 프로그램 ‘별이 빛나는 밤에’도 소개될 예정이어서 이래저래 특별한 의미를 던진다.

이문세 개인적으로도 2015년 특별한 해가 될 전망이다. 13년 만에 새 음반을 냈고, 감상선암도 거의 회복 단계다. 최근에는 ‘2015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도 받았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쉬고 싶었다’는 강동원, 새 영화 촬영…왜?

신인감독 연출작 ‘가려진 시간’ 출연
영화화 책임의식…이르면 연말 촬영

“쉬고 싶었다”는 강동원(사진)이 그 바람을 뒤로하고 새로운 영화의 시동을 걸었다.

현재 상영 중인 ‘검은 사제들’로 11일까지 200만 관객을 동원한 강동원은 분주한 활동 속에서도 새 영화 ‘가려진 시간’(제작 바른스필름) 촬영에 돌입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까지 촬영에 집중할 계획

이다. 이로써 강동원은 지난해 7월 ‘군도:민란의 시대’ 이후 ‘두근두근 내 인생’을 거쳐 최근 촬영을 마치고 개봉을 준비 중인 ‘검사와 전’까지 다섯 편의 영화를 설 틈 없이 쏟아냈다. 데뷔 이후 가장 왕성하고 적극적인 행보다. 공백 없는 활동으로 피로가 쌓인 탓에 한 때 휴식을 원하기도 했지만 그 대신 ‘가려진 시간’을 택한 데는 나름의 속내가 작용했다.

‘가려진 시간’은 엄태화 감독의 상업영화 데뷔작이다. 앞서 ‘잉투기’ 등을 통해 가능성을 인정받은 엄 감독은 주인공으로 강동원을



가장 먼저 떠올려 출연을 제안했다. 하지만 뻔뻔한 일정에 시달려온 강동원은 “촬영을 좀 미뤄 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했다. 돌아온 답은 부정적이었다.

아직 충분히 검증받지 못한 신인감독의 연출작, 대부분 신인 연기자로 채워진 출연진 등 ‘열악한’ 조건 탓에 제작진으로는 강동원의 출연이 절실했던 상황이었다. 강동원의 출연 향방에 영화 제작 여부가 판가름될 수 있던 상태였다. 강동원은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영화화가 안 될지 모른다는 책임감을 느꼈다”며 “그런 상황이라

면 내가 고집을 부려 더 미룰 수 없었다”고 결심을 당긴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신의 감정으로 통하는 소년의 이미지를 관객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출연을 이끈 배경이다. 영화는 네 명의 아 이들이 산에서 실종된 이후 사라졌던 소년이 홀려 자란 성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판타지 장르다. 강동원은 단 며칠 만에 성인으로 자라난 주인공을 연기한다. ‘소년성’은 강동원이 자신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꼽아오기도 했다. 강동원은 이를 가리켜 “‘가려진 시간’을 통해 본격적으로 그려낼 것으로 본다”고 기대를 걸었다.

이혜리 기자 golf1024@donga.com

‘1인 기획사’ 세븐 식구 늘리나

‘일레븐나인’ 사육 준공 앞뒤

군 제대 후 뮤지컬로 복귀한 가수 세븐(사진)이 내년엔 더욱 큰 폭의 발돋움을 꾀한다.

작년 12월 말 제대한 세븐은 5월 1인 기획사 ‘일레븐나인’을 설립하고 뮤지컬 ‘엘리자벳’에



출연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10월30일~11월9일 일본에서는 5개 도시 투어를 벌이며 현지 데뷔 10주년도 기념했다. 이어 세븐은 내년 더욱 활발하고 왕성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현재 서울 서교동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사육 ‘일레븐나인 빌딩’의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다.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에서 세

븐은 ‘일레븐나인’의 대표로 사무실을 열고 연습실도 마련한다. 준공검사가 끝나는 대로 내부공사를 시작해 이달 말 입주할 예정이다.

든든한 ‘집’을 얻은 세븐의 일레븐나인은 1인 기획사로 시작했지만, 내년에는 종합엔터테인먼트사로 도약한다. 현재 세븐에게 “함께 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오는 동료 연예인들이 있고, 현재 한식구가 되기 위한 막바지 협의 중인 연기자도 있어 조만간 새 식구

영입을 밝힐 전망이다.

세븐은 또 ‘엘리자벳’의 성공으로 현재 여러 뮤지컬의 출연 제안도 받고 있어 내년 새로운 작품도 예상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새 앨범을 내고 본업인 가수로 활동에 나선다. 입대 직전인 2012년 미니앨범을 낸 후 4년 만의 신작이다. 일레븐나인 측은 11월 “세븐은 새로운 회사에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활동을 벌일 것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원겸 기자